

2026 04

통권 312호

티옴

안동교구 사람 사는 이야기



천주교안동교구
CATHOLIC DIOCESE OF ANDONG

contents

- 01 2026년 교구 실천사항
- 02 2026년 교구 실천사항 -이달의 실천사항 2p
- 03 소공동체 기도 3p
- 04 반모임 길잡이 4p
- 05 복음 말씀(마지막 주일) 5p
- 06 말씀 길잡이 6p
- 07 질문하는 신앙, 성찰하는 삶 8p
- 08 대안적 삶을 찾아서 10p
- 09 가톨릭 농민분회 이야기 12p
- 10 우리 생명 이야기 14p
- 11 주교님과 함께하는 묵상 16p
- 12 건강한, 신앙생활 18p
- 13 교구 신앙의 역사 이야기 20p
- 14 소개합니다 - 교구역사관 22p
- 15 교구 소식 24p
- 부르심
- 17 사제의 단상 26p
- 18 신학교에서 온 편지 28p
- 19 그분과 함께 30p
- 20 알림 32p

티브움

'티브움'은

개인과 공동체가 신앙과 사랑의 싹을 틔우고
열매 맺도록 도움을 주는 가까운 벗이 되고자 합니다.

퍼낸곳 천주교안동교구사목국
주소 36678 경북 안동시 마지락길 77
전화 054.858.3114
홈페이지 <http://www.acatholic.or.kr>

표지 글·그림: 하삼두 스테파노 작가

2026년 실천사항

다가감
경 청
돌 봄

교 구

모든 이의 어머니가 되기 위하여

- 돌봄가 양성 프로그램 실행
- 위기의 영혼 방문

본 당

하느님의 집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 '성령 안에서 대화' 방식 이용
- 취약 가정을 위한 돌봄 네트워크 구축

사 제

동반자이자 위로자가 되기 위하여

- 찾아가는 사목
- 아픔 경청

평 신 도

서로의 벗이 되기 위하여

- 먼저 다가감
-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찾아 작은 돌봄 실천

• 위 표를 참조하여 본당별로 실천사항을 설정하셔도 좋습니다.



다가감 · 경청 · 돌봄의 실천

1. 부활 인사 먼저 건네기 _____

2. 쉬는 교우와 소통하기 _____



지구를 살리는 나의 실천

1. 지구의 날 행사에 동참하기
(4월 22일 저녁8:00-8:10 소등행사)

2. 불필요한 전등 끄기, 콘센트 뽑기

■ 다가감, 경청 돌봄의 실천과 지구를 살리는 나의 실천을 실천하신 후 체크하시면 됩니다

“함께 걸으며 복음을 살아갑시다.”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시는 하느님,
당신의 자비를 본받아
저희도 서로에게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서게 하소서.
무심함과 거리감을 넘어 마음을 열고
외로운 이들의 삶에 따뜻한 빛이 되게 하소서.

삶의 울부짖음에 귀 기울이신 예수님,
저희가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상대방의 말을 귀담아 듣는
참된 경청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기쁨에는 함께 웃고, 슬픔 앞에서는 곁을 지키는
진정한 벗이 되게 하소서.

새 힘을 일으키시는 성령님,
돌봄이 미치지 못해 어려움 속에 머무는 이들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어,
그들의 짐을 함께 나누며 공동체의 품으로 이끄는
참된 돌봄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 모두가 관계의 회심을 살아 복음의 생명력을
새롭게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 복음 7단계

1단계 (기도)

“어느 분이 이 자리에 주님을 초대하는 기도를 해주십시오.”
“관계의 회심을 위한 기도(3쪽)를 함께 바치겠습니다.”

2단계 (독서)

“어느 분이 복음 말씀(5쪽) 본문을 큰 소리로 읽어 주십시오.” (읽은 후)
“다른 분이 본문을 한 번 더 읽어 주십시오.”

3단계 (묵상)

잠시 침묵 중에 들은 말씀을 묵상합니다.
마음에 와 닿은 말씀(단어, 혹은 구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3분)

4단계 (선포)

‘마음에 와 닿은 말씀’을 한 사람씩 돌아가며 세 번씩 말합니다.

5단계 (나눔)

각자 ‘마음에 와 닿은 말씀’에 대한 생각과 체험을 나눕니다.

6단계 (활동과 실천)

1. 우리가 생활에서 할 수 있는 실천들을 제안합니다.
2. 본당 소식 및 기타사항을 전달합니다.

7단계 (기도)

“각자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해 주십시오.”
(진행자가 마무리 기도를 한다.)

■ 복음 말씀(주님 수난 성지 주일)

✎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0,1-10

그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양 우리에 들어갈 때에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 들어가는 자는 도둑이며 강도다. 그러나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들의 목자다. 문지기는 목자에게 문을 열어 주고, 양들은 그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그리고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 밖으로 데리고 나간다. 이렇게 자기 양들을 모두 밖으로 이끌어 낸 다음, 그는 앞장서 가고 양들은 그를 따른다. 양들이 그의 목소리를 알기 때문이다. 그러나 낯선 사람은 따르지 않고 오히려 피해 달아난다. 낯선 사람들의 목소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무슨 뜻인지 깨닫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양들의 문이다. 나보다 먼저 온 자들은 모두 도둑이며 강도다. 그래서 양들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나는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받고, 또 드나들며 풀밭을 찾아 얻을 것이다.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올 뿐이다. 그러나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얻어 넘치게 하려고 왔다.”

복음 말씀에 대한 해석 - 말씀 길잡이(6쪽)

진실로 진실로 말하노니

함원식 이사야 신부 / 농은수련원 원장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진실로 진실로’라는 표현을 반복해서 사용하십니다. 이 표현은 히브리어로 ‘아멘 아멘’인데, 예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 사용하십니다. 그러니 오늘 예수님은 우리 신앙에 핵심적인 가르침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목자에 비유하십니다. 사실 이 비유는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구약성경은 종종 하느님을 이스라엘 백성의 목자로 비유하곤 합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 (시편 22,1)

예수님의 말씀이 보여주는 장면은 팔레스티나 지방의 수많은 양 우리에서 매일 아침 벌어지는 일입니다. 밤이 되면 목자들은 주로 돌담을 쌓아 만든 양 우리 한 곳에 여럿이 한데 어울려 각자 자기 양들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어, 한 목자가 우리에게 들어가 자기 양들을 부르면 그들은 하나하나 목자를 따라나섭니다. 그동안 다른 양들은 우리에게 남아 자기들의 목자가 오기를 기다립니다.

이렇게 목자는 이른 아침에 양 떼를 데리고 우리 밖으로 나와 온 종일 양들의 먹이와 물을 찾아서 여기저기로 옮겨 다닙니다. 보기에는 양들이 목자를 보고 쫓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 이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갑니다. 양은 시력이 아주 나빠서 앞을 잘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노래를 부르거나 소리를 지르고, 지팡이로 땅을 치기도 하면서 양들을 몰곤 합니다. 양들은 그

소리를 따라 한 방향으로 이동합니다.

한 신부님이 광야에서 목자들의 생활을 체험하던 중 있었던 일입니다. 유다 광야에는 ‘와디’라는 지형이 있는데, 이곳은 평상시에는 메말라 있다가 비가 오면 급속도로 물이 불어나 커다란 강을 이룹니다. 그래서 와디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급히 높은 곳에 올라 동굴 속으로 피신해야 합니다. 신부님이 피신한 동굴에는 먼저 와 있던 목자들과 양 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좁은 공간에서 여러 무리의 양이 뒤섞인 것을 보고 신부님이 목자들에게 질문했습니다: “당신들은 어떻게 자기 양을 구분할 수 있습니까?” 그러자 목자들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비가 그치면 알게 될 것입니다. 있다가 보십시오.”

시간이 흘러 비가 그치자, 목자들이 하나둘 동굴 밖으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 목자가 노래를 부르며 나가자, 그 목자의 양들만 따라 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신부님은 그 광경이 하도 신기해서 목자의 노래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노래를 부르며 동굴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뒤를 돌아보니 한 마리의 양도 안 따라오는 것이었습니다. 양들은 노래의 곡조가 아니라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따른 것이었죠.

양들을 살리기 위해서 당신 목숨까지 바치신 예수님은 의심할 바 없이 착한 목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듣는 그분의 양인가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를 때만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성숙한 신앙 2 - 공부하는 신앙

정희완 사도 요한 신부 / 가톨릭문화와 신학 연구소

나이가 든다고 저절로 성숙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노년의 나이에 이르러 더 뼈저리게 느낍니다. 세월이 흐른다고, 시간이 간다고 사람이 저절로 성장하고 성숙해지지는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더 쪼잔해지고 속 좁아지는 나 자신을 자주 발견합니다. 청년의 자신감은 사라지고, 살아오면서 터득한 알량한 지식과 경험이 마음을 넓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고정관념으로 작동되어 시야를 더 좁히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오래 살아왔다고 해서, 삶과 사람에 대한 이해가 더 넓어지고 마음이 넉넉한 어른으로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은 주로 청소년 시기에 성장하고 성숙해집니다. 성인이 되어가는 과정인 청소년 시기에 학교 교육을 받고 사회 체제에 적응하는 훈련을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청소년 시절은 배움과 공부의 시간이기 때문에 성장과 성숙의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입니다. 국가와 사회에 의한 일종의 강제적 의무 교육 기간인 청소년 시기를 지나서 성인이 되면 개인의 성장과 성숙은 그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배우고 공부하는 사람만이 변하고 성장합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자율적으로 계속 배우고 공부하는 사람만이 세월의 퇴색과 고착을 이겨내고 성숙으로 나아갑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성사와 견진성사를 통해 뿌리내린 신앙은 신앙의

여정 속에서 계속 성장하고 성숙해져야 합니다. 신앙의 시간도 끊임없는 배움과 공부의 시간이어야 합니다.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위한 노력이 없다면 자칫 신앙은 종교적 관습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습니다. 배우고 공부하지 않는 신앙은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에 머물 수 있습니다.

삶의 모든 자리를 배움과 공부의 장으로 만드는 사람이 성숙해지고 어른이 되어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세상 속에서 발견하고 깨닫습니다. 사람과 삶에 대해 끊임없이 배우고 공부하는 사람만이 성숙한 어른이 되어간다는 진실을 우리는 압니다.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의 모든 자리를 배움과 공부의 장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독서와 복음을 미리 읽어보고 묵상함으로써, 사제의 강론을 깊이 경청함으로써, 마음을 모으고 태도를 바르게 하며 미사의 과정에 집중함으로써, 은총의 자리인 미사를 신앙 양성과 교육의 자리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레지오’와 ‘반모임’ 등 본당의 모든 모임의 자리를 예수님의 생각과 자세와 태도를 배우고 공부하는 자리로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함께 모여 성경을 읽고 공부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배워야 합니다. 함께 모여 교회의 문헌들을 읽고 성찰하며 이 시대에 교회 공동체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오늘을 살아가는 신앙인의 실제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배우고 공부해야 합니다.

냉장고 속의 칠면조

변태석 요한 보스코 / 가은성당 성유 공소 회장

옛날, 미국의 서부 어느 지역에 인디언과 백인이 이웃하여 마을을 이루고 살았습니다. 한때 야산에 넘쳐났던 칠면조가 어느 순간 백인 마을 뒷산에는 찾아보기 어려워졌습니다. 반면 인디언 마을 뒷산에는 여전히 건강한 칠면조들을 흔히 볼 수 있었습니다.

인디언 마을 사람들이 텃을 놓아 칠면조를 잡으면, 잡힌 칠면조 중 가장 약한 녀석들을 가족들이 먹을 만큼만 취하고 나머지 건강한 녀석들은 숲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숲으로 돌아간 건강한 칠면조들은 왕성하게 번식하여 숲속에는 언제나 칠면조가 차고 넘쳤습니다.

반면에 백인 마을 사람들은 칠면조를 잡으면 모두 집으로 가져가 온 가족이 배부르게 먹고 남은 것들은 냉장고에 저장하였습니다. 이렇게 남획한 덕분에 마을 뒷산에는 어느 순간부터 칠면조를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18세기 후반 영국을 필두로 산업혁명이 일어났습니다. 물품의 생산이 수공업에서 기계화된 공장 생산으로 바뀌었으며 많은 잉여 상품이 생겼습니다. 각국은 남은 상품을 안정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식민지를 경쟁적으로 만들었으며 세계는 제국주의 시대로 빠져들었습니다. 이 후과는 전 세계를 전쟁의 소용돌이에 빠트렸고, 이로 인한 갈등은 아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전 세계는 제국주의의 악몽이 다시 살아나는 듯합니다. 힘센 나라가 약한

나라를 침공하여 전쟁을 일으키고, 힘을 바탕으로 공정한 무역 질서를 뒤흔들기도 합니다. 강대국의 끝없는 욕망은 힘없는 나라의 많은 사람들을 곤궁에 빠트리고 있습니다.

나는 과학 교사로 일하면서 아이들에게 “과학 문명이 발달하면 과연 인간은 행복할까?”라는 질문을 던지곤 했습니다. 그러나 그다지 만족스러운 답변을 얻지 못했습니다.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소득이 증가해도 늘 인간의 욕망을 넘어서기가 어려웠습니다.

코로나 직전 미국 연수를 다녀왔는데, LA 주변의 도로는 하루 종일 붐볐습니다. 가이드에게 러시아워도 아닌데 왜 이렇게 차가 밀리냐고 물어봤더니, 높아진 생활 수준을 따라잡기 위해 사람들은 직장을 두세 개씩 가져야 해서 러시아워가 따로 없다고 했습니다.

2025년도 기준, 미국의 1인당 GDP가 약 9만 달러(우리나라의 2.5배)가 되는데도 사람들은 더 빠르게 살아야 하고 삶은 여유가 없어지며 점점 더 각박해지는 것 같습니다. 소득이 많아진 만큼 욕망의 크기 또한 더 커진 탓이겠지요.

우리의 삶은 어떠한가요? 먹고 남는 칠면조를 냉동실 속에 넣어 놓고 지내는 삶은 아닌가요?

많이 가지기보다 욕망을 줄이는 것도 행복한 삶을 위한 대안이 되지 않을까요?

장수분회

가톨릭 농민회 사무국

장수분회는 애초에 봉화분회로 창립되었다. 80년대 수세폐지투쟁, 고추제값 받기, 외국농산물 수입반대, 농협조합장 직선제 등 농촌 민주화와 농민권익을 위한 활동을 열심히 하였고, 88년 봉화군농민회 창립에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 그러다가 1991년 이후 우리밀 살리기, 우리콩 살리기 등 우리농촌살리기 운동에 함께하면서 1993년 장수분회로 재창립하였다.

○ 기본 현황

구분	내용
위치	경북 봉화군 소천리 일대
창립	1980년 봉화분회에서 시작, 1993년 재창립
운영체계	분기별 1회
임원 및 회원	분회장 : 이상구
	2가구 이상식 대건안드레아·남원숙 소화데레사, 이상구 바오로
주요품목	가농소, 감자, 들깨등
수상내용	2020.10.20. 제15회 가톨릭환경상 대상(이상식)
도·농결연현황	의정부교구 화정동성당 도농교류, 가농소 입식

○ 주요활동

우리농촌살리기운동을 본격화하며 천주교 의정부교구 화정동성당과 자매결연이 되어 감자캐기, 옥수수따기, 배추절임등 도농교류 활동과 생명농산물

가농소 사육



나눔을 전개했다.

특히, 이상식회원은 영풍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피해 공동대책위원회 대표로 활동하며 영풍제련소 소재지 재자연화에 앞장섰으며 이 활동으로 2020년 가톨릭환경상 대상을 수상했다

○ 농사체계

가농소를 사육해서 생산되는 퇴비를 이용하여 감자를 생산해 오고 있다. 또한 이 퇴비를 이용하여 옥수수를 재배하여 소에게 사료로 공급하는 순환체계를 실행하여 외국에서 수입하는 사료를 일체 사용하지 않고 친환경 농사 부산물로서를 사육하고 있다. 자가로 생산하는 사료를 먹여 가농소를 키우는 방안을 열심히 실천하고 있으며 유기축산 인증을 준비하고 있다.

‘영풍석포제련소 환경오염 실태고발’ 강연회(2018년 목성동성당)



지속 가능한 지구의 내일이 있게 하기 위한 길 32 - 핵발전소 없는 세상 만들기 7 -

김시영 베드로 신부
함창 본당 주임, 안동교구 생태환경위원회 위원장

정부가 지난 1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신규 핵발전 건설 계획을 밝힌 직후 한수원(한국수력원자력)이 핵발전소 건설을 위한 후보 부지 유치공모 절차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신규 핵발전소 유치를 원하는 지자체는 1.4GW급 대형 원전 2기와 SMR(소형모듈원자로) 0.7GW급 1기의 부지 공모에 응할 수 있으며, 지방의회 동의서를 포함한 유치신청서를 한수원에 제출하면 6월 말에 선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지 요건은 핵발전소 건설에 관련된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임해(臨海) 지역이며, 대형 핵발전은 32만평 이상, SMR은 15만평 이상의 면적이면 됩니다. 한수원 관계자는 국가 전력 수급 안정과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신규 핵발전소 확보는 필수적인 과제라면서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최적의 후보 부지를 선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핵발전소에 대한 정책 기조는 한국 사회의 안전과 민주주의, 기후 정의 그리고 세계평화를 송두리째 위협하고 있습니다. 핵발전소를 건설하겠다는 정부 정책 기조는 발전원 선택에 대한 단순한 에너지 정책 논쟁의 범위를 넘어, 시민의 생명과 존엄, 미래를 걸고 넘어지는 정치적이며 사회적 위기를 불러일으키는 불씨가 될 것입니다.

1. 신규 대형 핵발전 정책의 문제점

정부가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핵발전 필요성을 강조하지만 핵발전 사고의 위험, 방사성 폐기물 문제, 지역에 미치는 장기적 피해, 재생에너지 확대와 송배전망 충돌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핵발전 부활의 구실로 AI 시대 전력 수요 폭증을 말하지만 재생에너지와 배터리로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전력 수요 관리 실패와 산업 정책의 무능을 뒤로한 채 가장 위험하고 비민주적 방식인 핵발전으로 문제의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핵발전소는 결국 특정 지역의 삶을 담보로 하는 구조적 폭력이며, 경제적으로 취약한 지역의 발전 정서를 이용해 핵발전 정책을 밀어붙이려는 꼼수일 뿐입니다. 신규 대형 핵발전소 건설이 추진될 때마다 결국 뒤따르는 것은 과거에서 보듯이 또 다른 송전탑 갈등이며, 주민들의 삶과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일일뿐입니다. 나아가 대형 핵발전소 건설은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전기화로 질주하는 세계적 추세와도 완전히 동떨어진 돌발행동이며, 한국이 ‘핵발전 국가’라는 오명만 덧씌울 뿐입니다. 또한 미래의 거대한 녹색산업 기회 또한 사라질 것이고, 에너지 안보도 위태로워질 것입니다.


2. SMR(소형모듈원자로) 부지 유치 공모의 문제점

첫째, 임해(臨海) 지역이어야 한다고 명시한 점입니다. 그동안 SMR은 내륙 어디에든 지을 수 있는 게 강점이라고 주장해왔는데 전력 공급이 넘쳐나고 높은 핵발전 밀집도와 송전망 추가의 어려움이 불 보듯 뻔한 동해안에 추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둘째, 부지 면적의 근거가 불분명합니다. 현재 개발 중인 i-SMR(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이 170MW급 4개 모듈로 구성되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부지 조건이 15만평입니다. 그런데 공공로케도 SMR 유치 움직임이 있는 기장군과 경주에는 기존 원전 부지와 문무대왕 과학연구소 부지 내에 조건에 부합하는 땅이 있습니다. 셋째, 절차적 측면입니다. i-SMR은 표준설계는 끝났다고 하지만 한 번도 건설된 적이 없고 설계 인허가 과정도 시작되지 않은 원자로입니다. 새로운 기술인 탓에 심사 결과로 설계가 상당히 수정될 수도 있고 그러면 필요 면적이나 기술 조건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미국 유타주에서 누스케일파워가 추진하다가 좌초된 프로젝트의 SMR도 처음에는 모듈당 50MW급으로 설계 인증을 받았다가 경제성 등을 고려해 77MW급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한수원은 집을 지을 설계도도 승인받지 않은 채 근거 없이 부지를 공모하고 있는 셈입니다.

정부와 핵발전 산업계는 에너지 정책이 백년대계라는 말을 즐겨 씁니다. 그러나 핵발전 정책은 지역민의 삶과 직결되기에 단기 여론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리 급하더라도 필수적인 절차와 근거는 확보해야 합니다. 따라서 신규 핵발전소 건설 추진은 사실상 또 다른 ‘생태환경내란’입니다.



주교님과 함께하는 묵상



예로부터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가족 관계와 같았다. 스승은 제자에게 지식뿐 아니라 바른 인생길을 제시하며 자신의 삶까지 나누어준다. 연이어 발생하는 끔찍한 청소년 범죄는 교육부재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으로, 스승과 제자 간의 올바른 관계확립을 촉구한다. 스승과 제자의 만남이 어떤 방식으로 일어나건 그 기회가 단순히 지식 전달의 기회로만 이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뽑아 그들과 함께 생활하셨다. 공관복음에 나오는 ‘첫번째로 부르심을 받은 어부 네사람’은 제자로 부르심을 받기 전에 이미 예수님을 몇 번 만난 적이 있었고, 그분의 거처가 어디이며 그분이 누구인지를 조금은 알고 있는 상태였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없이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설 수 있었다.(마르1,18 참조)

만남이라는 신비, 권혁주 요한 크리스스토모 주교 지음

건강나이의 척도는 뒷모습

박인수 베네딕도 한의사 / 용상동 본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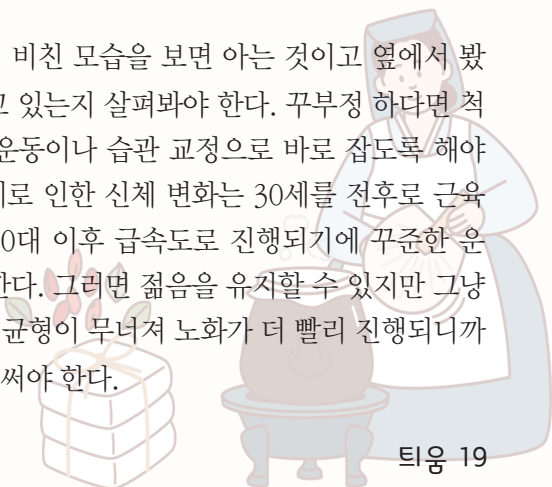
일반적으로 얼굴을 보고 나이를 가늠한다. 하지만 요즘은 성형도 많이 하고 보톡스에다 필러까지 하고 모발 이식에다 분장 수준의 화장으로 나이를 내린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나이를 감출 수 없는 게 뒷모습이다. 사람이 걸어가는 뒷모습은 신체의 나이와 건강 상태를 더 정확하게 반영한다. 바로 허리와 등, 어깨의 라인, 엉덩이 근육 상태를 통해 척추 건강과 신체 전반의 노화 정도를 가늠할 수 있어서다. 만약에 척추가 휘어져 있고 자세가 나빠서 고개를 숙이고 등이 구부정하게 굽어 있다면 그 사람은 늘 무게 중심이 한쪽으로 치우쳐있어서 장시간 서 있거나 앉아 있는 것이 힘들다. 게다가 중심축인 척추가 틀어져 있으면 중심 잡기가 힘들고 혈류 순환이나 장기로 가는 신경계통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일상에 지장이 많다. 특히나 걷고, 뛰고 움직이는 육체적인 동작들은 에너지 소모와도 연관되기에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가 계속되면 노화도 더 빨리 진행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자세가 좋지 못한 사람은 건강하지 못하고 신체 노화 정도가 심하다. 따라서 건강의 척도를 볼 때 무심코 걸어가는 사람들의 뒷모습을 살펴보는 것이 건강나이를 측정하는 지표가 될 수 있다.

좀 더 세분해서 보자면 먼저 굽은 등과 어깨가 안으로 말려 있으면 실제 나이보다 10년은 더 늙어 보인다. 등이 굽었다는 것은 코어근육이 약해져 척추가 지탱하지 못하는 건데 이런 자세로 생활하면 노화는 훨씬 빨리 진행된다. 다음으로 엉덩이 근육이 빈약해지면 엉덩이가 처지고 허리라인이 무너지게 된다. 엉덩이 근육이 척추를 지탱하지 못하여 자세가 틀어지고 그런 자세로 생활하면

노화는 더 빨리 진행된다. 체중이 많이 나가지 않는데도 여성의 경우 브래지어 라인이 도드라지고 남성의 허리 주변에 지방이 많다면 이것도 노화가 진행되었다는 신호다. 뒷모습으로 다 표시가 난다.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척추의 상태로 등허리가 곧은 사람은 나이가 많아도 젊은 뒷모습을 유지하지만, 굽으면 중년이라도 신체는 노인과 같다. 또한 걸음걸이로도 건강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데 발꿈치가 먼저 땅에 닿지 않고 질질 끄는 듯한 걸음걸이는 무릎과 발목 관절의 노화를 나타낸다.

이렇듯 뒷모습으로 건강나이를 측정하면 정확하기에 평소에 올바른 자세와 걸음걸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근력을 강화하고 운동을 꾸준히 해야 한다. 자세가 바른지는 차렷 자세로 섰을 때 귓볼에서 어깨 중앙과 골반의 중앙으로 이어지는 선이 일직선인지부터 살펴보는 것이다.

엉덩이에 탄력이 있는지는 거울에 비친 모습을 보면 아는 것이고 옆에서 봤을 때 허리의 S자 곡선이 잘 유지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꾸부정하다면 척추 건강에 이상이 있다는 신호니까 운동이나 습관 교정으로 바로 잡도록 해야 한다. 똑 바른 자세가 아닌 굽은 자세로 인한 신체 변화는 30세를 전후로 근육량이 서서히 줄어들면서 시작되고 50대 이후 급속도로 진행되기에 꾸준한 운동과 바른 자세를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면 젊음을 유지할 수 있지만 그냥 아무렇게나 생활하는 사람들은 신체 균형이 무너져 노화가 더 빨리 진행되니까 이제부터라도 자신의 뒷모습에 신경 써야 한다.



초대 교구장의 새로운 사목 구상(1)

신대원 요셉 신부 (안동교회사연구소장)

1969년 5월 29일, 교황 바오로 6세는 경상북도 북부지방을 사목할 안동교구를 대구교구에서 분리하여 새로 설정하고, 초대 교구장으로 당시 파리외방전교회 한국지부장이며 대전교구 상서국장 겸 대홍동 보좌신부이던 두봉 레나도(杜峰, Rene Dupont, 1929-2025) 신부를 임명하였다. 이어 7월 25일(성야고보 사도 축일)에 주교로 수품되어 안동 교구장 주교로 착좌한 두봉 주교는 제2차 바티칸공의회(1962-1965)의 정신에 입각한 새로운 사목 계획을 구상하였다.

두봉 주교의 사목 구상은 우선 교구 관할구역 재조정, 각 본당 관할구역 재조정, 5개 지구 및 각 지구 별 공동 사목 그리고 교구 첫 사제 서품 및 인사 발령으로 출발하였다. 먼저 교구의 관할지역과 본당은 안동 감목대리구 관할이었던 안동본당(2,068명, 차기선 신부), 봉화본당(584명, 나성도 신부), 영주본당(1,023명, 배세영 신부), 영덕본당(288명, 허진섭 신부), 영양본당(267명, 노광명 신부), 예천본당(1,702명, 매기석 신부), 청송본당(박로제 신부) 등이었다. 당시 왜관 감목대리구에 속했던 서문동본당(3,687명, 안덕화 신부), 남성동본당(2,788명, 도광주 신부), 함창본당(2,823명, 왕묵도 신부), 화령본당(1,238명, 송만협 신부), 문경본당(1,341명, 조동래 신부), 가은본당(1,344명, 신결만 신부), 점촌본당(3,158명, 김육태 신부), 주평본당(1,200명, 한상덕 신부)이었다. 또 대구교구에 속했던 의성본당(395명, 김용길 신부), 다인본당(1,646, 이길준 신부), 그리고 원주교구에 속했던 울진본당(788명, 최동호 신부) 등 18개 본당 및 175개 공소이며, 신자 수는 1,770,000여 명이었고, 특별히 사제가 주재하지 않은 곳으로는 퇴강본당이 있었다. 그밖에는 학교 2개, 병원 1개, 정착마을 6개소이고, 성직자 수는 주교 1명, 신부 19명(한국인 신부 2명 포함)이었다.

1970년 4월 7일, 교구 관할구역 재조정과 더불어 두봉 주교는, 지금까지 확실히 구분하지 않았던 본당 관할구역을 확정하고, 본당 책임하에 전교와 사목활동을 하도록 명했는데, 이렇게 확정된 관할구역은 시대가 흐르고 여러 신생 본당이 설립됨에 따라 점차적으로 수정 보완되어 2025년 현재에 이르게 되었다.

한편, 교구장 주교는 안동교구를 5개 지구로 나누고, 각 지구별로 유대강화와 공동 사목, 그리고 사제와 평신도들의 모임을 자주 갖도록 권장하였다. 당시 5개 지구는 안동-의성지구, 상주지구, 문경지구, 동해지구, 북부지구였다. 각각의 지구에는 본당이 소속되어 있었는데, 우선 안동-의성지구는 안동과 의성과 다인본당이 이에 속하였고, 상주지구는 서문동, 남성동, 화령본당, 문경지구는 문경과 가은, 주평본, 점촌, 함창본당, 동해지구에는 울진, 영덕, 영양, 청송본당이 그리고 북부지구에는 영주와 예천과 봉화본당이 이에 속하였다. 이러한 5개 지구는 비록 본당이 당시보다 현격히 늘어남에 따라 1990년대에 들어와서는 안동지구와 의성지구가 분할되어 6개 지구로 되어 있다. 하지만 2026년 오늘날까지도 각 지구 별 공동현안에 대해서도 각 지구에 속한 본당들이 공동으로 대처하는 이른바 “지구별 공동 사목”은 여전히 존속하여 진행되고 있다.

이와 같이 지구별 공동사목이 진행된 까닭은 안동교구가 처해져 있는 특수한 지역적 특성에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안동교구는 대부분의 지역이 인구밀도가 낮은 농촌 지역이므로 교통이 불편하고, 각 본당의 위치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어 다른 교구에 비하여 상대적 열악한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 호에서도 두봉 주교의 새로운 사목 구상에 대해서 계속하여 알아볼 것이다.

의성공소 공소예절 (1959년 경)

1959년 경 본당으로 승격되기 직전 의성공소의 모습이다. 공소집과 공소예절을 드리는 전경이 한 장에 담겨 있어 아주 귀중한 자료이다. 공소집의 마루에 꾸며진 제대의 모습이 잘 보이고, 대청마루에는 남자 어른들이, 방에는 할머니들이, 공소 마당에는 신자들이 공소예절 주례자에 따라 자리를 깔고 앉아 공소예절을 거행하고 있는 모습이다.

어르신들에게 옛 공소에 대한 이야기를 듣노라면 그때는 신자들이 많아 공소 마당까지 멍석을 깔아 놓고 예절을 드렸다는 이야기를 자주 들었다. 지금과 너무 먼 얘기라 상상이 되지 않았었기에 이를 사실로 증명하는 이 사진이 아주 값지다.



교구 소식들

■ 구역장반장연수-상주지구



■ 신앙대학 개강



■ WYD 봉사자 양성 교육-4차



부르심



수직식과 입학식

권형배 알베르토 신부
교구 성소 청년 담당

지난 2월 마지막 날, 우리 교구에서는 김기섭 요셉(구담성당) 신학생이 독서직을 받았습니다. 4년의 신학공부를 마치고, 지난 1년 동안 여러 공동체에서 실습의 시간을 보낸 후, 올해 독서직을 받고 다시 신학공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에 대한 묵상과 선포의 직무수행을 통해 영적으로 조금씩 더 성숙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3월 첫날에는 신학교 입학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구에서는 두 명의 신학생이 입학했는데, 손동일 토마스 아퀴나스(점촌동성당)과 김태영 사도 요한(개운동성당) 신학생입니다. 긴장감과 동시에 기대감도 엿보였습니다.

올해 사순시기 중에 있었던 수직식과 입학식에 함께 하면서 파스카 사건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부활은 파스카 사건을 기억하는 축제입니다. 예수님의 파스카 여정은 순탄한 꽃길이 아니었지만, 그 끝은 비극이 아니라 승리로 끝났지요. 신학교 여정 안에 슬한 버거움과 광야같은 막막함도 있지만, 신학생들은 곁에 있는 눈에 보이는 이들과, 또한 영원한 동반자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희노애락에 함께 하고 있음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분께서 외치는 “나를 따라라”는 목소리를 듣고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 신학생들이 있어 우리 교회는 희망을 가집니다. 아울러 이 파스카의 희망을 현실로 만들어내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이들의 여정에 박수를 보냅니다.

대구신학교에서 발행하는 소식지 ‘TRINITAS’¹⁾에 어느 신학생이 쓴 시가 있

1) ‘삼위일체’라는 뜻의 라틴어로, 대구신학교에서는 3개 교구(안동, 대구, 부산)가 함께 어울려서 생활하는데, 이 세 교구가 “한 마음 한 뜻”(사도 4,32)으로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한다는 의미가 담겨있다.

어서 나누려고 합니다. 파스카 같은 신학교의 여정과 그 안에서 느끼는 신학생의 마음이 잘 녹아들어 있어서 저자의 허락을 받아 소개합니다.

제목은 <제단에 앞드리기까지>입니다.

아침 해 뜨기 전에 / 옷매무새 가다듬고 /
대성전 올라가니 / 묵상 열기 가득하다

맑은 날 띄약별에 / 축구공 날아가고 /
석양빛 드리우자 / 목주 알 굴러가네

명절날 다가오면 / 공중전화 줄을 서고 /
밤하늘 별을 헤며 / 겨울방학 기다리네

술잔을 부딪치며 / 서운함을 뒤로 해도 /
내일이면 함께 하자 / 두 손 잡고 노래하네

이팔청춘 젊은 날을 / 낭만 찾아 떠났더니 /
이보다 더 큰 행복 / 어디 가서 맛볼런가

우리들의 고운 성소 / 절차탁마 다들어서 /
온 세상 환호 소리 / 복음으로 채워보자

하루 안에 영원 있고 / 영원 안에 머물리니 /
삼백예순 다섯 날을 / 천상에 거닐리라

오늘도 당신 일꾼 / 사랑으로 일하오니 /
십자가 위 주님 얼굴 / 열은 미소 그득하다

처음과 같이

김기섭 요셉
연구1, 구담 본당

찬미 예수님! 다들 잘 지내고 계시는지요? 2026년의 새해가 밝아온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한 해의 반 가까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들 올 한 해 세운 목표가 있으셨는지요? 또 잘 지켜나가고 계시는지요? 다짐이란 것이 하기는 쉽지만 해나가는 것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것이 작든 크든 말입니다. 사람 일이란 것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일까요 혹은 한 발짝 내딛는 용기가 살짝 부족했기 때문일까요. 그럴수록 언제나 하느님께 의지하면서 또 함께해달라고, 용기를 달라고 간청하면서 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한 해의 시계는 다 돌아가지 않았으니 모두 함께 열심히 해나가면 좋겠습니다.

저도 한 해의 시작과 함께 여러 계획을 세웠었지만 용기가 부족해서인지 잘 지켜나가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세웠던 다짐 중 하나는 ‘초심을 되찾자’였습니다. 저는 이번에 입학한 신입생들처럼 1학년으로 학교에 오게 되었습니다. 비록 완전한 1학년이 아닌 대학원 1학년으로 복학한 것이지만 1년 동안의 실습기간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다시 1학년으로 입학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한 것이 다시 1학년 때 초심을 되찾자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신학교의 생활에 점차 익숙해지고 공부와 현실에 적응하기도 했고 몸은 점차 편해졌지만 그와 반대로 하느님에 대한 저의 열정과 사랑은 조금씩 식어져 갔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복학하는 때에 그리고 독서직이라는 직을 수여받은 만큼 다시 1학년 때의 하느님에 대한 마음을 다시 되찾고자 합니다. 비록 이 마음이 약해질 수 있지만 하느님께서 잘 이끌어주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나 일과 삶에 치여 하느님을 잊고 살고 계셨다면, 꽃이 피는 이 계절에 다시 한 번 하느님에 대한 마음을 꽃피워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렇다면 언제나 저희와 함께 계시는 하느님께서 반갑게 맞이해주시며 저희의 꽃을 만개시켜주실 것입니다. 많이 따뜻해진 날씨이지만 늘 건강 조심하시고 영육간에 건강하시길 기도드리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안동교구 신학생을 소개합니다”

2026년 안동교구는 9명의 신학생들이 부르심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교구 신학생들을 위해 기도 중에 기억해주십시오.



부제
김정수 그레고리오
(송현동 본당)



부제
이민우 테오필로
(봉화 본당)



연구1
김기섭 요셉
(구담 본당)



학부4
김병욱 가브리엘
(용상동 본당)



군복무
심민성 디오니시오
(모전동 본당)



군복무
김윤성 바실리오
(주교좌 목성동 본당)



학부2
이상현 베드로
(태화동 본당)



학부1
손동일 T.아퀴나스
(접촌동 본당)



학부1
김태영 사도 요한
(개운동 본당)

대신학교 수직식 및 입학식

2월 28일(토) 11시, 3월 1일(주일) 11시에 대구 남산동 대신학교에서 수직식과 입학식이 있었습니다. 김기섭 요셉(구담) 신학생이 독서직을 받았고, 손동일 T.아퀴나스(점촌동), 김태영 사도 요한(개운동) 2명의 신학생이 입학식을 가졌습니다. 교구 신학생들을 위해 기도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알림

알림

1. 예비신학생 성소주일 행사

일 자 : 4월 26일(주일)

장 소 : 대구 대신학교

2. 2026년 예비신학생 등록 신청

대 상 : 사제 성소를 꿈꾸는 중고등부 남학생(중1~고3), 대학생과 청년

방 법 : 등록 카드 작성 후 부모님 동의와 본당 신부님 추천을 받아

사목국으로 우편 접수. 공문을 통해 안내 확인.

※ 등록카드 다운 방법

안동교구 홈페이지-자료실-서식자료 - 안동교구예비신학생등록카드

3. 성소후원회 회원을 위한 미사

안동교구 각 본당 매월 마지막 주일 교중미사

매주 수요일 교구청 미사

품격 있는 황혼

브라이언 그로간 | 김학준 | 148*210 | 342쪽 | 17,000원



하느님 사랑 안에서 여생을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책은 나이 듦, 죽음, 영광의 영성을 깊이 고고 기도 안에 머물러
숨을 고르며 새 힘과 용기, 희망을 얻도록 초대합니다.

바로로딸은 진리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수녀들이 운영하는 서점입니다.
전화 054-859-6040 / 목성동 주교좌 성당 입구